

정신적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직업능력에 따른 취업욕구

Employment Need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 Centering on Income and occupational ability Variables

박 효 은, 최 만 규*, 이 현 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보건행정학전공,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

Hyo-Eun Park, Man-kyu Choi*, Hyun-Kyung Lee**
 Korea Univ master's student.,
 Korea Univ. *,
 Seoul National Hospital.**

요약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직업능력에 따른 취업욕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취업 활성화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2010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에 3년간 참여한 정신적 장애인 298명(가중빈도적용:154,348명)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정신적 장애인이 남성, 중졸 이상,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 유형중 지적장애일 때 교육참여 희망률이 높았다. 한편, 취업의사를 가진 정신적 장애인은 남성, 가구주, 중졸이상, 자격증 소지자, 육체활동 능력이 높아질 때,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 유형 중 자폐장애일 때 취업의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신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사업주 주도적 직업활동을 제안하였다.

I. 서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단순히 빈곤에 대한 해결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생존권과 노동권의 보장과 함께 장애인의 자아를 실현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 장애인이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그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 회복과 장애인의 신분보장을 위한 취직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어야 한다[2]. 특히, 회복의 정도를 결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취직 및 직업재활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지만 보고된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현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여러 연구에서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의 소득[3], 건강상태[4], 직업능력 및 직업경력 개발요인[5] 등을 제시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사회적 배경 및 필요성에 근거한 요인에 따라 취업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미비하게 이루어져 왔었던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능력, 경력개발, 소득수준에 따른 취업욕구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을 제안하려고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연구대상자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료 (한국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0)

정신적 장애인 중 비 경제활동인구	실제빈도	가중빈도
지적장애	159	83,174
자폐성장애	22	3,354
정신장애	117	67,820
계	298	154,348

2. 연구자료

1) 변수의 구성

(1) 종속변수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교육/직업훈련 참여욕구, 취업욕구(기간상관없음)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능력(자격증 유무, 운반능력, 육체활동능력,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경력개발(현장실습/인턴쉽&공공/민간 훈련경험 유무), 소득수준(공적소득보장제도 수급 유무)을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구성했다.

(3)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여부, 가구주유무, 최종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신적 장애인 구분, 일상생활도움 필요여부,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2) 분석 방법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능력, 경력 개발, 소득수준에 따른 취업욕구는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취업욕구에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직업교육훈련 참여의사

정신적 장애인 중 직업교육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1.577배 높았고,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보다 지적장애가 3.558배 높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및 무학을 기준으로 중졸은 6.8배, 대졸은 2.7배 높은 값을 보여 교육수준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희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직업능력에서는 자격증을 소유한 정신적 장애인이 2.4배,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에서는 못함 보다 보통인 경우에서 1.6배 높은 교육참여 희망률을 보였다.

2. 취업의사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선 남성이 여성보다 2.8배 높은 취업의사를 보였고, 가구주 여부에서는 가구주가 2.1배 높은 취업의사를 보였다. 장애유형에서는 정신장애보다 지적장애가 1.6배, 자폐 장애가 4.5배 높은 취업의사를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도 위의 교육참여 희망률과 같이 초등 및 무학인 경우보다 대졸, 고졸, 중졸 인 경우 각각 7.8배, 2.7배, 3.8배 높은 취업의사를 보여서 정규교육과정의 중요성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육체활동능력은 한 단계 상승 할 때마다 취업의사가 1.7배 높아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고찰 및 제언

정신적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욕구 여부에서 가장 큰 설명력을 주는 요인은 성별이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욕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취업에 관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가구주인 경우 취업의사가 높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정신적 장애인들은 배우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특히 배우자 부양 의무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다음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욕구가 높았는데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며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운반능력 및 육체활동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욕구가 높았다. 취업욕구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현장실습/인턴십경험이

없는 상태였으며, 공공/민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대부분이 취업욕구가 있었다. 이는 취업욕구가 있는 비 경제활동 정신적 장애인들이 경력개발 및 취업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취업욕구가 없는 비 경제활동 정신적장애인들은 대다수 경력개발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욕구를 파악 후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수준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수급권자인 경우 직업교육 참여희망 여부가 낮게 나타났으며 취업의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공공부조 내 급여체계가 근로연계성(소득공제율 등 포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취업가구에서 공적소득보장의 정책효과가 불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적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통합된 개념이나, 이들에게 동일한 정책을 제공하기에는 세 장애의 특징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각 장애별 차별화된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정신적장애인의 취업의지 향상을 위해 공적소득 보장프로그램의 개편 및 소득공제율의 확대와 수급여부와 의 조정을 통해 이러한 적합성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정책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정신적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직업재활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상 그들의 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사업주 주도형 고용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역 선택에 대비한 정신적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1] 박경순,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 정책 네트워크 관점", 한국직업재활학회, 제14권, 제2호, pp23-55, 2004.
- [2] 장인협, 사회복지 행정론: 이론과 실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 [3] 김세연, 구인순, 박자경, "여성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2권, 제8호, pp318-329, 2012.
- [4] Milet, P. & Sandberg, K. W. (2003). Locus of control and its relationship with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unemployed sick leaves in Sweden. *Journal of Rehabilitation*, 19(1), 59-66.
- [5] Martz, E. (2003). Invisibility of disability and work experience as predictor of employment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8, 153-161